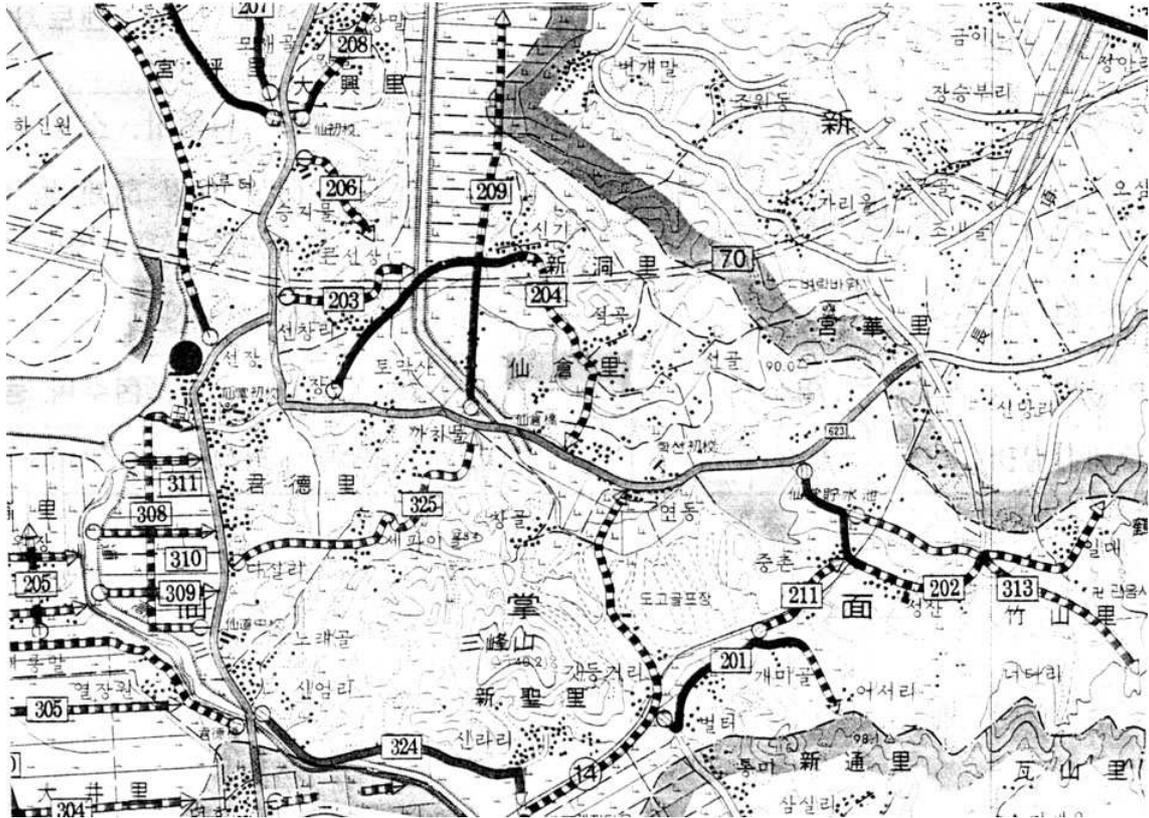


선창리·仙倉里

선창리는 선장면의 한 마을로 크게 네 마을로 나뉜다. 1리는 큰선장, 2리는 연동, 3리는 토막사, 4리는 창골이라 부른다. 선창리엔 총 567명이 살며, 155가구가 산다. 주민의 79%가 농업에 종사한다. 선창리는 면소재지에서 북동쪽으로 약 75m정도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선창리는 본래 신창군 대서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선장, 창리, 연동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선장과 창리의 이름을 따서 선창리라 하여 아산군 선장면에 편입되었다.

<선창리 위치도>



⊠ 큰선장, 연동, 토막사, 창골마을

큰 선장 마을을 선창리에서 으뜸가는 마을로 상고때부터 시장이 4일, 9일로 쇠었는데 1917년에 시장을 군덕리로 옮긴 후로 큰 선장이라 한다. 또한 지금의 면소재인 군덕리가 선장향으로 선박이 드나들던 시절 선장향과 인정한 마을로 큰선장 본선장이라 불렀다고 한다.

연동마을은 선장 남동쪽에 있는 마을. 권씨가 살면서 마을 앞에 못을 파고 연을 심었다고 하여 연동이라고 하고 옛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만 살았기 때문에 가구를 전부 떼어 쌓아 지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으로 떼장거리라 불리기도 하며 학선초등학교가 있다. 토막사마을은 선장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 창고가 있었다. 또 6.25사변때 피난민들이 야립을 빌려 토막을 짓고 살았다하여 토막사라 일반인이 부르고 있다. 창골 마을은 아산시 선장면 선창2리에서 80년도 선장 4리로 행정구역 분리 되었으며 창골이라는 명칭은 옛날에 창고가 많이 위치한 관계로 창골이라 함.

<조사당시 선창리 마을 관련사진>



1) 위 치

큰 선장 마을은 위도 36-47-10, 경도 126-52-10인 지역으로, 면소재지에서 정북동쪽으로 1km 되는 곳엔 삼교천과 이어지는 작은 냇가 흐르고 있다.

연동 마을은 위도 36-47-30, 경도 126-52-30인 지역으로, 선장 면소재지에서 정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마을이다. 면소재지를 지나는 623국도가 있는데 북동쪽으로 0.5km가다가 도로가 난곳(정동쪽)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2.5km되는 지점에 도로 양쪽으로 갈라진 마을이다.

토막사 마을은 위도 36-47-10, 경도 126-52-40인 지역으로, 연동에서 623국도를 따라 서쪽으로 1.5km되는 마을이다. 다시 말해서 선장 면소재지에서는 동쪽으로 직선거리 1.3km, 국도거리 1.5km정도에 위치한 마을이다. 도로를 끼고 있는 마을을 사람들은 토막사라 부르고, 토막사 약간 아래에 있는 마을을 까치물이라고 한다. 창골마을은 까치들과 연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2) 현 황

큰 선장의 인구는 남자 89명, 여자 74명으로 총 163명이다. 44가구가 살고 있는데 농업에 39가구(86%)가 종사하고 연동은 남자 95명 여자 99명 총 184명이며 45가구가 산다. 45가구중 38가구(84%)가 농업종사하고 토막사는 총 129명으로 농가가 47가구(96%)이다 창골은 80년도에 선창2리에서 선창4리로 행정구역 분리로 인구수면 가구수가 제일 적다. 인구는 총 68명이며 남자는 33명 여자는 35명이고 21가구중 10가구가(48%) 농가이다.

- 인구 분포

구 분 마을명	계	남	여
큰선장마을	163	89	74
연동마을	184	95	99
토막사마을	152	72	80

창골마을	68	33	35
------	----	----	----

- 생업

구 분 마을명	계	농 업	기 타
큰선장마을	100%	86%	14%
연동마을	100%	84%	16%
토막사마을	100%	96%	4%
창골마을	100%	48%	54%

농경지 현황을 살펴보면 큰선장마을은 논이 34ha 밭이 18ha이고 연동마을은 논이 28ha 밭이 12ha이며 토막사마을은 논이 27ha 밭이 13ha이다. 창골마을은 선창리에서 제일 적은 논이 13ha 밭이 12ha이다. 그리고 농기계 보유는 다른 마을과 별차이 없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논	밭
큰선장마을	52ha	34ha	18ha
연동마을	40ha	28ha	12ha
토막사마을	40ha	27ha	13ha
창골마을	25ha	13ha	12ha

- 농기계 보유 현황

구 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콤바인	분무기
큰선장마을	25대	15대	21대	8대	5대	20대
연동마을	22대	3대	8대	7대	3대	18대
토막사마을	35대	7대	35대	10대	2대	25대
창골마을	5대		2대	4대		

문화시설로는 각리당 마을회관 1개소씩 앰프는 1개구비하고 있으며 사물놀이 악기도 구비되어 있다. 연령분포를 보면 50대가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 문화 시설

구 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프	사물놀이	마을문고
큰선장마을	1개소	1	1조	
연동마을	1개소	1	1조	
토막사마을	1개소	1	1조	
창골마을	1개소	1		

- 연령 분포

구 분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0세이상
-----	------	-------	-------	-------	-------	-------	-------	-------	-------

마을명									
큰선장마을	10	15	15	15	25	40	23	15	5
연동마을	14	20	20	25	25	35	30	12	3
토막사마을	10	23	14	10	12	40	25	15	5
창골마을	6	11	14	6	10	8	7	10	1

- 성씨별 분포

구 분 마을명	김씨	이씨	박씨	황씨	최씨	권씨	오씨	한씨	기타
큰선장마을	11%	14%	25%	16%					34%
연동마을	24%	13%	11%		13%	16%	16%		7%
토막사마을	11%	24%	8%					6%	51%
창골마을	29%	20%			14%	14%		변씨 20%	3%

- 학생분포

구 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큰선장마을	18	15	10	
연동마을	6	7	5	
토막사마을	13	10	8	
창골마을	7	1	3	3

- 최고령자

큰선장마을은 송간난 할머니로 94세이시고 연동마을은 90세로 원옥선 할머니이다.

토막사 마을은 이종낙 할아버지로 89세이시고, 창골마을은 정필모 할아버지로 84세이시다.

- 호당평균소득

큰선장 마을은 약 1,000만원/년, 연동마을은 약 840만원/년

토막사 마을은 약 1,500만원/년, 창골마을은 약 800만원/년

3) 자연 경관

큰 선장은 신동리 1구(설골)와 논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으며 뒤 야산 한쪽에는 많은 주택들이 있다. 마을 서쪽은 집 사이사이에 논이 끼여 있다. 동쪽 끝으로 논이 있으며 집과 들 사이는 좀 작은 언덕이 있다.

연동은 623국도를 끼고 있는 마을이며 도로 남쪽으로는 집과 논이 많다. 북쪽으로는 학선초등학교가 있고 집도 몇채 눈에 띈다. 마을 동쪽으로는 300m도 안 되는 지점에 선장저수지가 위치하고, 남쪽으로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도고골프장이 있다. 연동의 들은 집들의 남쪽에 약간 있는데 창골의 들과 동서로 접해 있다. 또한 마을을 잇는 14번 도로의 끝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토막사는 까치물의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이며 623국도를 가운데 끼고 있다. 토막사와 까치물 사이에 높은지대에 논이있다. 까치물에서 국도를 지나 북쪽에도 논이 많다. 그런데, 이 마을엔 산이 사방에 하나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4) 마을 변천과정

선창리는 본래 신창군 대서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선장리, 창리, 연동

의 각 부분을 병합하여 선장과 창리의 이름을 따서 신창리라 하여 아산군 선장면에 편입되었다. 연동은 신창군 대서면의 지역이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선창리로 병합되면서 아산군 선장면에 편입되었다. 편입된 후, 지형적인 문제로 두 마을로 나뉘어, 좀 외딴 곳에 있는 이 마을을 2구로 정하고 연동이라 불렀다. 1914년에 선창리로 병합된 후 두 마을로 나뉘었었는데, 큰선장쪽을 다시 두 개의 마을로 분리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마을을 3구인 토막사로 부르게 되었다. 토막사는 6.25때 피난민들이 들어와 사는 바람에 새로운 마을로 불리게 된 것이다. 창골마을은 선장면 선창2리에서 80년도 선창 4리로 행정구역이 분리되었다.

5) 입 향

큰 선장에는 구터라는 마을이 있는데 옛날 이곳에 관서를 지낸 서씨의 묘를 만들었다. 옛날 3정승 6관서 하면 대단한 권력가였기 때문에 이곳에 묘를 쓴다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모두 이주시켰다. 아직도 그 묘가 남아 있으며 그의 후손이 이곳에서 5대까지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한 세대도 살고 있지 않다. 연동마을은 김씨가 처음 터를 잡았으며 제일 많은 세대가 살고 있고, 그 후로 권씨와 오씨, 이씨와 박씨가 들어왔다. 박씨는 큰선장에 살던 사람들이 이곳으로 들어온 것이라 한다. 이런 성씨들 외에 기타 성씨들도 한,두세대씩 살고 있다. 토막사 마을엔 원래 큰 선장과 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박씨가 처음 터를 잡아 살았으며 6.25때 피난민들이 들어오면서 각기 다른 성씨들이 많이 생겼다. 특히 이씨가 많이 들어와 지금까지도 11세대로 가장 많다.

6) 지 명

·선장{큰선장} : 선창리에서 가장 으뜸가는 마을 상고때부터 시장이 4, 9일로 셋었는데 1917년에 시장을 군덕리로 옮긴후로 큰 선 장이라 함.

·연동{때장거리} : 선장 남동쪽에 있는 마을 권씨가 살면서 마을 앞에 못을 파고 연을 심었음. 또 때를 가지고 지붕을 해 이었다하여 때장거리라 불리기도 함. 학선 초등학교가 있음.

·창 골 : 선장 남쪽에 있는 마을 옛날 창고가 있었음.

·서편말 : 선장 서쪽에 있는 마을.

·구룡재 : 대텃골 옆에 있는 골짜기. 옛 기와조각이 많음.

·군 터 : 선장 서쪽에 있는 골짜기.

·대텃골 : 군터 서쪽에 있는 골짜기.

·선창리 절터 : 선창리 야산 경사면에 있다.

·방죽골 : 선장 동쪽에 있는 마을. 앞에 저수하는 논이 있음.

·가장골 : 선장 남쪽에 있는 마을.

·동편말 : 선장 동쪽에 있는 마을.

·까치물 : 선장 남쪽에 있는 마을. 옛날 창고가 있었음.

7) 전 설

이 마을에서 특별히 소개 할 만한 전설은 조사 되지 않았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 행사

·우친제

·7월 7일 마을 안녕을 비는 제를 지낸다.

9)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

·김용기 공적비(학선초등학교 부지회사) : 1979. 4. 10

1971년 김용기씨는 토지 4000여평을 회사하여 학선 초등학교를 설립하여 산간 5개여 부락 어린이들의 배움의 터전이 되게 하였다.

10) 종교 단체

기독교-연동장로교회

11) 공장현황

·동호(주) 대표 : 성락중 선창 327외2, 생산품목 : 난방용구제조

·선우정공(주) 대표 : 유성준 선창 산6-11, 생산품목 : 자동차부품

12) 마을의 특성

지금의 면소재지인 군덕리가 선장항으로 선박이 드나 들던 시절 선장항과 인접한 마을로 큰 선장 또는 본선장 이라 불려왔으며 논농사를 주업으로 생활하고 있다. 1950년 6·25사변후 피난민들이 많이 몰려 살았고 한때는 양잠을 아산시 전체의 1/3을 차지했을 정도로 뽕밭이 전부였으나 지금은 현대 자동차 협력 업체인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다. 요즘은 특산물로 담배를 재배하고 있다.